

힌두 탄트라 전통들*

저자: 도미닉 구달(Dominic Goodall),
하루나가 아이작슨(Harunaga Isaacson)

역자: 방정란 (독일함부르크대학)

* 본고는 *Tantric Traditions*, in *The Bloomsbury Companion to Hindu Studies*. London: Bloomsbury, pp.122-137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다. 하지만, 출판된 원문의 각주 번호에 오류가 있어 이후 저자들이 이를 교정했으므로, 그 교정본을 저본으로 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원문의 미주 번호 85-92번은 실제 논문 뒤에 첨부된 미주 번호 86-93번에 해당하고, 원문의 93번 미주는 실제 미주의 94번이다. 또한 원문에서 출판 예정으로 언급된 논문이 현재 시점으로 출판된 경우에는 [네모 괄호]를 쳐서 역주표기임을 명기했다. 원래의 제목에 따르자면 ‘탄트라 전통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확하나, ‘힌두’를 첨가한 것은 본 논문이 실린 책의 제호가 보여주듯이 ‘힌두 연구’라는 큰 틀에서 본 논의가 다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탄트라 연구는 힌두 전통의 샤이비즘과 바이슈나비즘 등의 문헌학적 연구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들은 불교 밀교 연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인도학의 다른 분야와 비교해 원전적 자료 발굴과 학제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탄트라 분야는 저자들이 천명하듯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최근 연구 성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므로, 범람하는 이차 자료들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줄 탄트라 연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탄트라 연구사를 간략하지만 짜임새 있게 다룬 이 논문은 현재 관련 연구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저자들이 근래 나온 연구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으므로, 탄트라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22권 (2017. 12) 283p~332p

www.kci.go.kr

탄트라(Tantras)라 불리는 경전들의 권위를 주창하고, 만트라(mantras)의 힘을 통해 세속적이고 초자연적인 다양한 목적들 뿐만 아니라 해탈까지 약속하는 입문 의례의 종교들이 남아시아에서 기원 후 6세기 무렵부터¹⁾ 주요하게 부상했다. 단지 변방에만 이 전통들이 머물르지 않았다는 점은 탄트라를 따른 자들이 생산한 방대한 문헌적 자료들의 양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의 삶과 왕실에서 탄트라 스승들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Sanderson, 2005). 또한 이 전통들은 인도 대륙에만 한정되지도 않았다, 최근 연구에서 샌더슨이 강조한 바처럼(2004)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 반도에 걸쳐 퍼졌던 인도 종교의 전통들 가운데 불교 탄트라, 유신론 종파인 샤이비즘(Śaivism)과 바이슈나비즘(Vaiṣṇavism)의 탄트라 형태들이 특히 널리 퍼졌다. 동아시아에서는 탄트라 형식의 불교가 인도에서 출현한 이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대중성을 확보했다, 적어도 그 불교 탄트라들은 현재까지 비탄트라적인 대승불교(Mahāyāna)과 함께 일본에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티벳 불교에서 전적으로 우세한 것도 불교 탄트라이다.

그러나 영향력이 컸음에도 이 종교 전통들의 많은 문헌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학문적인 분야에서 등한시 되었고, 20세기 초반까지도 탄트라 문헌군들과 그와 연관된 저작들은 실질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11년부터 카슈미르 시리즈(Kashmir Series of Texts and Studies, 이후 KSTS)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수많은 샤이바 탄트라 문헌들을 출판하면서, 특히 8-13세기 사이에 저작되었던 철학적인 작품들의 베일이 점진적으로 벗겨지기

1) 우리는 먼저 논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짧은 본고에서 인도의 식민시대와 그 이후 기간의 탄트라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식민지 이전이나 그 부근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1300년대쯤까지 탄트라즘의 기원과 관계된 시기를 주로 다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삼십년간 이 분야의 학문적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에 이 시기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기서 연구출판물은 전부 1995년 중반부터 약 십오년간 나온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 전의 이십년간 나왔던 아주 중요한 출판물들의 경우에는 언급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초고를 읽고 유용한 제언을 준 Shaman Hatley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생한 탄트라 전통들 중에서도 인도 대륙의 대부분과 그 너머 지역에서 우세했던 탄트라 사조의 경전들, 소위 사이바싯단타(Saivasiddhānta)라 이름 붙여진 문헌들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다.

한 세기가 지난 현재의 탄트라 연구는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연구 분야가 되었으며, 인도 종교의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탄트라 관련 지식들은 지난 반 세기를 넘어 오면서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 학문적 융성은 제일 먼저 특히 그동안 미출판된 문헌들과 같은 많은 양의 원전 자료들에 접근이 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타밀어를 사용하는 남인도는 근래 몇 세기 동안에도 사이바싯단타의 방대한 산스크리트 주요 문헌들이 필사되었고, 현재까지도 전승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장 필리오자(Jean Filliozat)는 1965년 남인도 폰디체리에서 프랑스-인도 연구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아시아의 종교 역사에서 잃어버린 한 장을 연구하기 위한 이상적인 학회의 토대를 구축했다. 점차 사이바싯단타 관련 문헌의 가장 많은 양의 특화된 사본 컬렉션들은 폰디체리의 프랑스 연구협회(French Institute of Pondicherry, 이후 IFP)에 축적되었으며, 현재 이들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폰디체리의 사이바 필사본들이라는 표제를 달고) ‘세계기록유산 컬렉션으로 승인되었다’.

인도대륙의 정반대 지역인 네팔의 서늘한 기후는 인도 학문의 사실상 모든 학파 문헌들의 오래된 필사본들, 심지어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사본들의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이바와 불교, 그리고 바이슈나바를 아우르는 초기 탄트라리즘의 역사 대부분은 네팔 사본들의 거대한 기록 저장소에서 보존되었는데, 그 사본들은 지난 삼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팔-독일 사본 보존 프로젝트(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이후 NGMPP)에 의해 마이크로필름화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끝났지

2) 간략한 내용은 Muller & Goodall (2005)의 소책자를 참조하라.

만, 뒤따라 하루나가 아이작슨의 지휘 아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과 नेपाल 카트만두 지부인 नेपाल 연구 센터(Nepal Research Centre)를 거점으로 नेपाल-독일 사본 카탈로그 프로젝트(Nepalese-German Manuscript Cataloguing Project, 이후 NGMCP)가 이어졌다.

바이슈나바 탄트라 자료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이십 세기 초에 시작되었고(Schrader 1916), 다니엘 스미스(Daniel Smith)에 의해 바이슈나바 탄트라의 현존하는 자료들에 대한 유용한 조사(1975-1980)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와카르 아차리아(Diwakar Acharya)는 근래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슈나바 자료들이 지금껏 연구되었던 경전 자료들보다 연대가 앞서지만 판차라트라(Pāñcarātra)의 기원들에 관해선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샤이바 모델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냈다.

동일한 저자는 또한 태양 숭배를 중점에 둔 신앙을 설하는 현존 유일의 태양계 탄트라 문헌인 『사우라상히타』(Saurasamhitā)가 (Hannerer 1998: 246-7에서 편집한 Takṣakavarta의 Nityādisamgraha에서 전하는 목록들의) 태양계 경전들 중 하나라기 보다는 샤이바 문헌인 『칼롯타라』(Kālottara)의 한 전승본이며, 실제로 많은 정형 구문들이 『칼롯타라』로부터 차입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참조 Sanderson 2009:55-6).

비록 불교 탄트라라는 본고의 주제가 아니지만, 탄트라 전통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불교 전통들을 언급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불교 탄트라도 특히 인도 사르나트의 고등 티벳학 연구 센터(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가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노력으로 불교 탄트라 문헌들의 출판 작업을 개시하면서, 그에 관한 이용 가능한 일차 자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불교 탄트라의 전반적인 개요를 연구했던 일본학자들은 교정본들과 연구 출판물들을 통해 큰 공헌을 했고, 그로 인해 힌두 탄트라 연구의 융성과 더불어(절대

우연이 아닌) 불교 탄트라 학문 분야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자로 토루 토마베치(苔米地等流)를 들 수 있다(Tomabechi and Mimaki 1994, Tomabechi 2007, Tomabechi 2008, Tomabechi 2009 와 Luo and Tomabechi 2009).

물론 상당한 양의 일차 자료들이 이용 가능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학문적 발전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껏 연구되지 않았거나 종종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문헌들을 읽고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고된 작업을 수행했던 개개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만약 헬레네 브루네르(Hélène Brunner)를 확고한 목표로써 샤이바싯단타 연구를 수행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알렉시스 샌더슨(Alexis Sanderson)을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범위로 탄트라 전통을 연구하도록 만들었던 우연한 발견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탄트라 연구는 분명히 그 진척이 훨씬 더디었을 것이고 (본고가 실린 이 책을 포함해) 학자들의 레이더망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³⁾. 후자인 샌더슨의 경우에는 그의 지도를 통해 배출된 박사논문들이 중요한 공헌들을 하면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여러 전공 논문들도 이러한 박사논문들에서 시작했다) 탄트라 분야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샤이바 탄트리즘의 기원을 밝힌 몇몇 연구들은 주로 (Mantramārga 혹은 만트라 길이라고 지칭되는) 실질적 의미의 탄트리즘을 다룬 게 아니라, 만트라 마르가를 배출한 비탄트라적 파슈파타(Pāśupata) 종교인 아티마르가(Atimārga)를 다룬 것들이었다. 이 주제에 관련해 가장 중대하게 공헌한 연구를 꼽는다면 ‘The Lākulas : New Evidence of A System Intermediate between Pāñcārthika

3) Hélène Brunner의 학문적 일대기에 관해서는 Padoux(2007)를 참조하라. Sanderson(2007a)에 서는 저자 본인이 자신의 초기 연구 단계를 기술하고, 그의 스승인 Swami Lakshman Joo에 대해서 적고 있다. 락슈만주는 학문적 스승이기 보단 정신적 스승(guru)에 가까웠지만, Lilian Silburn 과 Raniero Gnoli와 같이 카슈미르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줌으로써 서구의 탄트라 연구의 과정에 깊이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Pāśupatism and Āgamic Śaivism(라쿨라: 판차르티카 파슈파티즘과 아가믹 샤이비즘 사이의 중간 체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이라는 제목 아래 2006년에 나온 샌더슨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종교적 입문 의례에 쓰이도록 고안된 우주구조론적 개념들과 관련해, 아티마르가와(뒤에서 다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이른 사이바 탄트라 사이에 두드러진 교의적 연결성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최근 논문들은 그 우주구조론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아티마르가 학파에 속한 비문(碑文)에서 찾은 증거들을 제공하고(Bakker 2000), 의례 영역에서 아티마르가와 만트라마르가 사이의 연속성들을 밝혀냈다(Acharya 2005와 2007). 피터 비스쵸프(Peter Bisschop)의 작업들(2005와 2007)은 판차르티카 파슈파티(Pāñcārthika Pāśupata)에 해당하는 아티마르가 전통과 관련해, 이미 잘 알려진 우리의 이해를 더욱 정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껏 우리가 ‘연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티마르가에서 만트라마르가로의 전환을 규정할 수 있을까? 이 중 후자는 어떻게 따로 떨어져 나온게 된 것일까? 이 새로운 탄트라 종교는 가장 먼저 해탈(mukti)과 초자연적 힘의 향수(bhukti)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에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주문(vidyā 혹은 mantra)의 힘과 속죄 의례와 상당히 복잡한 필수적인 의례 공학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둘다 입문식(dīkṣā)을 필수로 한다. 아마도 여기까진 완전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마법을 위해 만트라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혁신적이라 할 수 없는 반면에, 아티마르가에도 역시 입문 의례는 필수적이며, 이는 실로 베다 제의에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해탈 또한 아티마르가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었다. 만트라마르가의 진언들은 베다의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다섯가지 만트라(brahmamantras)를 사용하며, 입문식(dīkṣā)은 더 이상 적어도 판차르티카 파슈파티들에게 그랬던 것

처럼 새로운 신앙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문 의례가 아니라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의례가 되었다. 해탈도 아티마르가에서처럼 입문식 이후 장기간의 정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문 의례의 순간에 스승이 행한 의례와 염송된 만트라를 통해서 속박이 쉬바에 의해 본질적으로 제거된 결과로서 간주된다. 더 나아가 해탈은 양쪽에서 모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자 동시에 전지전능의 실현으로서 여겨지지만, 만트라마르가의 해탈은 아티마르가에서처럼 오직 남성인 브라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카스트에게 열려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해당된다.

이러한 혁신들의 조합은 만트라마르가가 명백하게 지녔던 강력한 매력의 요인이었을 것이며, 폭넓은 지지자들을 끌어당기는 자력이었을 것이다⁴⁾. 이러한 유사한 관념들의 연계는 오직 특정한 관정 의례(*abhiṣeka*)를 받은 수행자들에게 의해서만 다뤄져야 하는 주술적이며 구제론적인 도구로서의 만트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연계는 샤이바 문헌보다는 불교의 문헌에서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리고 만트라마르가와 아티마르가 사이에서 찾아지고 종종은 더 거슬러 올라가 브라민 전통에서도 찾아지는 그러한 연결 고리들은 적어도 불교의 초기 비탄트라적 형식의 몇가지 점들에 있어서 샤이바 전통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기원에 있어서는 샤이바 탄트라의 전통이 불교 탄트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전통들의 기원들과 그 발전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끼친 방식은 여전히 격렬한 토론의 주제이다(예를 들면, Ruegg 1964, Sanderson 1994, Davidson 2001, Sferra 2003, Ruegg 2008과 Sanderson 2009 참조).

4) Mantramārga의 성공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Sanderson 2009 중 특히 252-303쪽을 참조하라.

5) Kriyātantra라고 분류되는 *Mañjuśrīyamūlakalpa*와 같은 초기 불교 탄트라의 자료들은 해탈론에 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덜 보인다.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문헌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헌은 우리가 논의했던 많은 탄트라와 비탄트라의 전통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헌은 바로 9세기 경의 네팔 필사본으로 남아 전해지는 『니슈바사타트바상히타』(*Niśvāsataṭṭvasaṃhitā*, 이후 『니슈바사』)이다. 과거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문헌에 주목했으며 (Hara Prasad Śāstri 1905:lxxvii와 137-40, Goudriaan & Gupta 1981:33-6), 현재[2011년 당시]는 비판 교정본이 준비 중에 있다(Goodall and Isaacson 2007 [이 비판 교정본은 2016년 출판되었다.] 이 문헌은 다섯개의 편으로 나뉘지는데, 모든 편이 동시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제일 먼저 이 문헌은 두 종류의 비탄트라 전통에 속하는(탄트라 전통의 이전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아티마르가 종파들의 서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티마르가와 만트라마르가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한 증거는 특히 『니슈바사』가 해탈 입문 의례(*nirvāṇadīkṣā*- 만트라마르가를 설명하는 『니슈바사』의 부분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서 쓰이는 복잡한 우주구조론의 범위를 설명할 때 나온다. 탄트라 이전과 샤이바 탄트라의 구제론 사이에 연속성은 앞에서 말한 Sanderson 2006의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이 문헌의 다섯 편 중의 마지막(마지막 혹은 뒤에서 두번째) 편인 『구흐야수트라』(*Guhyasūtra*)는 크리야탄트라(*Kriyātantra*)라고 불리는 비구제론적 불교 탄트라에서 나타나는 주술과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불교 크리야탄트라 문헌인] 『만쥬슈리아몰라칼파』(*Mañjuśrīyamūlakalpa*)와 동일하게, 주술적인 성취(*siddhi*)를 얻는 방법에 관한 산문체의 주술법이 적힌 주술서를 이 문헌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두 [문헌의] 주술법은 똑같이 수식된 많은 동일한 요소들을 통해 매우 유사한 언어로 표현되고, 적어도 한 주술법의 경우에는 모든 상세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여자든 남자든, 주술 인형을 통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된 후), (『니슈바사』에 따르면, 피를 바른) 소금으로 만든 주술용

인형을 갈가리 찢어야 하고, 천팔 번의 공물 제의를 시행해야만 한다⁷⁾.

제시된 주술법에 따라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싯디(siddhi)의 단계들이 열과 연기 또는 불꽃의 현시를 통해서 알려진다고 하는 개념 또한 두 자료사이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구호야수트라』 10.27ff에 제시된 주술법은 “천팔 번의 공물 제의와 함께 [가능한] 세 가지 단계의 능력(siddhi) - 열이 나면 단번에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 연기가 난다면 사라지는 능력, 불꽃이 난다면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⁸⁾”고 결론짓는다. 싯디의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아모가파사칼파라자』 (*Amoghapāsakaḥparāja*, 不空羅索神變眞言經)와 같은 다른 불교 작품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단계의 분류법은 『니슈바사』 이외의 다른 샤이바 문헌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⁹⁾.

이와 같이 『니슈바사』는 아마도 샤이바 탄트라 이전의 구제론과 불교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는 비샤이바적이며 비구원론적 탄트라 주술, 이 두 가지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헌은 비일원론 사이비즘의 카쉬미르 지역의 주해자들이 채택했던 몇몇 탄트라 문헌들과도 연결되는데, 이 문헌의 수천 개가 넘는 많은 계송들은 아비나바굽타(*Abhinavagupta*)의 제자였던 크세마라자(*Kṣemarāja*)가 11세기에 주석했으며, 넓은 지역으로 전승되었던 『스바찬다탄트라』(*Svacchandatantra*)의 부분으로 채용·변용되었고, 다시

6) Niśvāsa에서 관련 만트라라는 Vāmadeva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관련 만트라를 통해 행해야 할 의례 매뉴얼을 가르치는 방법이 Vāmadevakalpa 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7) *Niśvāsa Guhyasūtra* 14.65 (*atha lavaṇamayīm pratikṛtiṃ kṛtvā rudhireṇābhyajya tīkṣṇāstreṇokṛtya pādaḥ prabhṛti chitvāśtasahasraṃ juhuyā striyā puruṣasya vā sa vaśyo bhavati*) 를 *Mañjuśrīyamūlakalpa* chp.55 (G 673쪽, *lavaṇamayīm pratikṛtiṃ chitvā chitvā juhuyād aṣṭāśahasraṃ. yam icchati sa vaśo bhavati strī vā puruṣo vā*)와 비교해보라.

8) *aṣṭāśahasrahomena trividhā siddhir bhavati* (10;31). *uṣme pādapracārikām, dhūmāyamāne 'ntardhānam, jvalitenākāśagamanam* (10;32)

9) Goodall and Isaacson 2007:5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이 『스바찬다탄트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뒤에서 종종 언급할 또 다른 긴 분량의 비전인 『탄트라삿브하바』(*Tantrasadbhāva*)에서 재편집되었다. 또 다시 채택된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은 우주구조론에 대한 것이지만, 만트라와 요가 관련 제재들 또한 채용된다. 남쪽 전승(*dakṣiṇasrotas*)의 바이라바 탄트라(*Bhairava Tantra*)인 『스바찬다탄트라』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상당한 수의 사본들이 현재까지도 카쉬미르, 네팔, 그리고 타밀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이르기 까지 현존하는) 넓은 유통 범위와 많은 의례서들에 이 문헌의 교리가 흡수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니슈바사』는 이러한 탄트라 문헌들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적으로 바라문교의 정설과 베다의 동일한 선상에 놓이는 (많은 경우, ‘남인도 아가마들’로 잘못 언급되는) 샤이바싯단타의 원형이기도 한다. 비록 이 작품이 만트라마르가에 속하는 어떤 교파도 언급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샤이바싯단타와 닥시나스로타스(*Dakṣiṇasrotas*) 등의 분파로 나뉘기 전으로 그 저작 연대를 추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헌은 오늘날 싯단타 탄트라의 스물 여덟개 주요 경전으로 현재 알려진 (그 고유의 이름이 특색을 이루는) 스물 여덟개 경전들의 기준에 대해 현존하는 가장 이른 목록이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은 샤이바싯단타 학파가 존재했던 그 시기에 이미 그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¹⁰⁾.

이 방대한 분량의 작품에서 포함되고 생략된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이 초기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 10세기까지 인도 대륙과 그 너머에서 탄트라 샤이비즘의 주요한 줄기가 되었는지, 비문들과 현존하는 문헌으로 기반으로 그 밑그림을 뽑아낼 수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만트라마르가의 어떤 특정한 사

10) 이 라벨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증언은 칸치푸람(*Kancheepuram*)에 있는 *Kailāsanātha* 사원에 있는 본 제레단의 기단을 둘러싼 8세기 비문에서 나타난다. 거기에 나타난 해당 계승은 Goodall 2004:xix, fn.17에서 논의되었다.

회상[에 대한 기술은 이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사원들 혹은 7세기의 『스바야म्브후바수트라상그라하』(*Svāyambhuvasūtrasaṅgraha*) 성립 시기 이후¹¹⁾에 흔히 나타나는 ‘*ācārya*’, ‘*sādhaka*’, ‘*putraka*’와 ‘*samayin*’과 같이 입문자들의 서열에 관한 어떤 언급이나 통과 의례들에 대한 사이바 고유의 형식들에 관한 언급도 찾을 수 없다. 물론 브라민의 통과 의례들은 사회적 신앙의 필수 부분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후대의 사이비즘에서도 이어져 내려 오지만, 특유의 사이바 장례 의례는 이후에 발전되었고¹²⁾, 이러한 의례들은 『니슈바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¹³⁾.

『니슈바사』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초점은 이미 브라민은 물론 비브라민들을 위해 비베다적 만트라들을 사용함으로써 입문 의례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입문식의 구조는 (Brunner 1977에서 상세하게 해설된) 11세기의 『소마삼부파닷티』(*Somaśambhupaddhati*)에서 설하는 ‘고전적인’ 기준과는 꽤나 상이하다. 『니슈바사』에서 ‘*vidyādīkṣā*’와 ‘*nirvāṇādīkṣā*’라고 불리는 두 가지의 입문 의례들에 대한 가르침이 전체 텍스트를 거쳐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문(*vidyā*)을 완전히 습득함으로써 특별한 능력을 수련(*sādhana*)하기 위해 입문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해탈(*nirvāṇa*)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향수享受(*bhoga/bhukti*)와 해탈(*mokṣa/mukti*)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탄트라의 목표들이다. 하지만 그 교설에 있어서는 몇몇 놀라운 점들이 발견된다. 이원론(정통적인 *Śaivasiddhānta*의 해법)과 불이원론(*Abhinavagupta*와 같이 10-11세기에 더욱 유명했던 키슈

11) *Svāyambhuvasūtrasaṅgraha*가 7세기 혹은 그 이전이었음은 대략 675년에서 725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으로 Sanderson이 짐작하는 *Sadyojyotiṅī* 이 문헌의 시작 계승에 대한 주석을 썼다는 점에서 확정될 수 있다.

12) 이 주제는 최근 Nina Mirnig의 박사논문(2009*)에서 주요하게 다루졌다.

13) 그러나 반 줄의 *Guhyasūtra* 11.38ab는 *antyestī*의 문맥에서 의례 순서의 역행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르의 학자들의 해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윤회(samsāra)에서 모든 영혼을 속박의 상태로 만드는 내재적 부정不淨(ānava-mala)이라는 다른 샤이바 탄트라 문헌들에 편재하는 개념은 『니슈바사』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명백히 이 점은 『니슈바사』에서 전혀 체계화되지 않았었다. 때때로 샤이바 탄트라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간주되는, 그 미세함의 정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서른 여섯 가지 구성 원리(tattva)와 관련한 우주론의 묘사도 아직 진화하지 않았고, 이러한 묘사들은 『니슈바사』가 다시 편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물론 『니슈바사』와 이 문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은 많은 논문들, 특히 알렉시스 샌더슨과 폰디체리에 위치한 프랑스국립극동연구소(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이후 EFEO)와 폰디체리 프랑스 연구협회(IFP)에 속하는 학자들과 장(Jean)과 피에르-실뱅 필리오자(Pierre-Sylvain Filliozat), 바트(N.R. Bhatt)와 그의 연구팀, 브루노 다겐스(Bruno Dagens)와 헬레네 블루네르-라쇼(Hélène Brunner-Lachaux)와 같은 샤이바싯단타 연구를 개척한 사람들의 논문들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샤이바 문헌들에 대한 수많은 초판 교정본들을 생산했고,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학자의 경우에는 잘 알려졌으며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승되었던 샤이바 탄트라 의례집 『소마삼부파닷티』(Somaśambhupaddhati) (Brunner 1963, 1968, 1977, 1998)에 관해 권수가 뒤로 넘어갈수록 그 세련됨과 복잡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매우 귀중한 해설서들을 출판했다. 인도 폰디체리에서 샤이바싯단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연구된 문헌들은 남인도의 것이고, ‘북쪽의 아가마’들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남쪽의 아가마’가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처음에는 나르마다(Narmadā)와 갠지스강 사이에 있는 사원의 제사장이었던 소마삼부(Somaśambhu)가 남인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브루네르는 그녀의 아이디어들을 지속

14) 이에 대해선 [*Goodall 2015] 참조.

적으로 재검토했고, 『스바찬다탄트라』(*Svacchandatantra*)와 『네트라탄트라』(*Netratantra*)와 같은 북쪽 전승의 탄트라들이 그녀가 주로 집중했었던 문헌들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초기 사이단티카의 경전들이 샤이바 탄트라 문헌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었고, 이들 중에 어떤 것도 남인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12세기 즈음에 저작되기 시작했던 ‘샤이바 사원 아가마’라고 지칭될 수 있는 남인도의 별개 문헌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카미카』(*Kāmika*), 『카라나』(*Kāraṇa*), 『아지타』(*Ajita*), 『수프라브헤다』(*Suprabhedā*), 『딤타』(*Dīpta*)와 『숙슈마』(*Sūkṣma*)라는 제목을 지닌 현존하는 텍스트들이 포함된다. 초기의 경전들과는 달리 이 중 어떤 것도 네팔이나 카슈미르 필사본으로 전승되지 않았고, 12세기 혹은 12세기 이전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게 인용되지도 않는다¹⁵⁾. 보다 이른 싯단타탄트라들이 입문 의례를 통한 해탈의 획득과 각기의 입문자들이 알아야 하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주제들(신학, 요가, 정규 의례들과 다른 의식들)을 주요한 테마들로서 설하는 반면에, 사원 아가마라는 이 새로운 문헌군은 남인도 샤이바 사원 생활에 관한 모든 상세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했다¹⁶⁾. 그러므로 탄트라들과 이 특수한 남인도 사원 아가마들 사이의 구별은 주제에 있어서 그리고 꽤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어휘의 사용에서도 어느정도 이해가는 면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샤이바 남인도 사원 아가마들과 『키라나』(*Kiraṇa*), 『마탕가』(*Matāṅga*), 『파

15)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증거는 Goodall 1998:xxxvi ff와 2004:xiii ff를 참조하라.

16) 최근 몇년 동안, 12세기와 그 이후 문헌들에 집중된 많은 양의 출판물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Brunner의 사후에 출판된 *Parārthanityāpījāpaddhati* (1999)에 대한 불어 번역, Dagens와 Barazer-Billoret (2000)이 한 *Rauravāgama*의 불어 번역(Goodall 2004:xliv-xlvi에 따르면 그 중에 *Rauravasūtrasaṅgraha*이 오래된 부분이다.); Bhatt, Filliozat과 Filliozat (2005)이 한 *Ajita*의 재교정본과 영어 완역본; Barazer-Billoret 등등 (2004, 2007, 2009)의 *Dīpta*의 최초 교정본; Aghoraśiva에게 귀속된 *Mahotsavavidhi*의 번역과 연구(Davis 2010); 그리고 *Sūkṣma*의 교정본 중 첫 번째 권(*Sambandhasivācārya*와 Ganesan 2010)이다.

라키야』(Parākhya)와 『므리겐드라』(Mṛgendra)과 같은 10세기 이전 싯단타 탄트라들이 공유한 공통점들은 비교가능한 연대의 바이슈나바 남인도 사원 아가마들, 다시 말해 『파우슈카라상히타』(Pauṣkarasamhitā), 『파라메슈와라상히타』(Pārameśvarasamhitā), 그리고 『이슈와라상히타』(Īśvarasamhitā)와 같은 판차라트리(Pāñcarātra) 아가마 경전들과 지니는 공통점들 보다도 그 정도가 덜하다⁷⁾.

그러므로 동남아시아로 인도 종교의 미학과 사상 등이 확산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남인도 경전 집성은 그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간단히 말해 이 남인도 전통은 너무 후대이고 확실히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련성은 오히려 『사르바즈나뉓타라』(Sarvajñānottara)나 앞서 언급한 『니슈바사』와 같은 초기 네팔 사본들을 통해 전승된 전적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 ‘외국으로’ 전승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이 문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의 비문들에 실제로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이 두 문헌들은 이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이다. 이 문헌들의 교정본들은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사르바즈나뉓타라』의 경우, 도미니크 구달이 남인도 신학자였던 아고라쉬바(Aghoraśiva)가 지은 (1157AD) 12세기의 주석과 함께 편집중이다.

오래된 네팔 사본들을 통해 전해지는 사원과 관련된 경전들, 다시 말해 현존하는 『핑갈라마타』(Piṅgalāmata)와 『마야상그라하』(Mayasaṅgraha), 『모하추뉓타라』(Modacūḍottara)와 『데브야마타』(Devyāmata)와 같은 프라티슈타(Pratiṣṭhā) 탄트라들의 비판 교정본들은 추후 몇년 안에 기대되는 작업들이다⁸⁾. 이들은 분명히 12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며 남인도의 것들도 아니지만, 언

17) 이를 보여주는 진화하는 수단이 현재 Marion Rastelli와 Dominic Goodall의 지휘 아래 Austrian Academy of Science가 구성한 팀원들이 만든 ‘힌두’ 탄트라 용어들의 사전인 Tāntrikābhidhānaakośa이다. 사원 의례와 축제들과 관련한 각 항목들은 이러한 후기 12세기의 샤이바와 판차라트라 경전들이 동일한 사상적 세계 안에 속해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 이들이 저작되었으며 어디에서 왔는지는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도상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랫동안 라오(Rao)가 그의 저서 ‘Elements of Hindu Iconography (1914)’에서 사용했던 후기 12세기 남인도 자료들에 의지해 왔다. 초기 사이단티카의 문헌들을 남인도 사원 조각들과 연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시도들(특히, Goodall 2005와 2009 참조)은 싯단티카(Siddhāntika)가 공양(供養, pūjā)과 봉납(奉納, pratiṣṭhā) 의례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조각들 사이의 도상들에는 유사점이 현저하게 적다고 하는 브루네르의 결론을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부네만(Bühnemann 2000, 2001과 2003)은 여기서 나아가 비의적인 탄트라의 도상들에 대한 진전된 연구 성과를 출판했다.

앞으로 더욱 탐구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문헌군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칼롯타라(Kālottara)의 판본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 문헌군은 특히 탄트라 의례들의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샌더슨(Sanderson 2004:358)이 보여주듯이,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칼롯타라』(Kālottara)의 200송 버전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모든 현존 사이단티카(Saiddhāntika)의 의례서(paddhati)들의 중심부를 이루며, 12세기 저자들에서 의해서 처음으로 인용되는 미출판된 6000송 버전은 그 자체로 합성된 문헌이며 (예를 들면 Sanderson 2001:38-41 참조), 200송 버전과 동일한 혈통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비-사이단티카(non-Saiddhāntika)의 사상을 의례서(paddhati) 전통으로 들여오는 데 이 버전이 매개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싯단타(Siddhānta)에서 벗어나지만, 그 고대성에서 있어 『니슈바사』에 필적하는 다른 샤이바 탄트라의 흐름이 있다. 이는 네 명의 여신에 둘러싸인 톱부

18) *Niśvāsākhyaamahātāntara*라고 알려저도 있는 이들에 대해 언급된 것의 마지막 도상학적 부분은 Anna Ślaczka의 연구 주제로, 교토에서 개최된 제 14회 World Sanskrit Conference에서 발표되었 듯이 그에 대해 근래에 다뤄졌다. 그리고 Elizabeth Mills의 Oxford 박사 논문이 이 문헌들의 *prāsādalakṣaṇa* 부분들과 초기 샤이바 작품들에 관해 진척을 일구었다.

루(Tumburu)라고 불리는 쉬바 형상의 승배를 가르치는 바마(Vāma) 탄트라 계열의 것이다. 근래에 샌더슨(Sanderson 2009:50-1과 129의 주석 301)은 이에 대해 이 전통이 분명 초기의 것이며, 영향력을 크게 떨쳤던 적이 있었음을 상세하고 풍부한 증거들로 논의했다. 이 흐름에 속하는 문헌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경전인 『비나쉬카탄트라』(*Vīṇāśikhatantra*)는 네팔에서 (단일 패엽 사본과 그것을 필사한 근래 사본 apograph 으로) 보존되어 온 또 다른 귀중한 유산이다. 그러므로 이 문헌에 대한 고드리안(Goudriaan)의 교정과 번역본은 매우 가치있는 공헌이다¹⁹). 만약 『니슈바사』 보다 오래된 탄트라가 있다면, 아마 이 문헌이 그것일 것이다. 샌더슨(Sanderson)과 바수데바(Vāsudeva)가 발표한 (Sanderson 2009:50-1 중 특히 주석 22에서 보고한) 최근의 연구 가운데 중요한 발견은 유명한 (그리고 대부분이 불교 사본인) 길기트 필사본들 사이에서 발견된 아리아 운율로 쓰여진 툼부루(Tumburu) 승배에 관한 학문적이며 비정전적 계열의 문헌의 필사본 두 장(folio)에 관한 것이다. 샌더슨과 바수데바는 고문학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들을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한다(Sanderson 2009:50). 이 파편에 대한 출판물은 매우 기대되는 것으로, 앞으로 학자들이 고드리안의 선구적인 연구물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들과 바마(Vāma) 탄트라 계열로 추정했던 것에 대한 관련 지식을 진일보 시킬 새로운 연구 과제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⁰).

샤이바 경전의 다른 주요한 분류는 바이라바(Bhairava) 탄트라 계열에 속하는 것들이다. 분노존의 형상과 (일반적으로 싯단타의 온순한 신들과 ‘보다 순

19) Brunner(1988)가 이에 대해 작성한 이례적으로 길고 내용이 풍부한 리뷰도 함께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교정과 번역은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20) 그의 *Vīṇāśikhatantra*의 첫 번째 번역이 나온 지 12년이 지난 후, 그리고 그가 이 탄트라가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전, Goudriaan(1973)은 Tumburu와 그의 여신들에 관한 풍습에 대해 알 수 있는 남아시아 자료는 물론이고 동남 아시아를 모두 아우르는 유용한 조사를 이미 발표했다.

수한 수행들과는 대조적인) 도덕률을 초월하는 양상을 포함하는 수행이 지배적이며, 보다 여신 지향적인 탄트라들을 포함하는 이 문헌들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 성과를 거뒀다.

아비나바굽타가 저술했던 유명한 저작들에서 다뤄진 트리카(Trika) 전통은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 온 연구 주제였지만, 주요 경전들 중 하나인 『말리니비자유타트라』(*Mālinīvijayottaratantra*)는 최근에 들어서야 (Madhusudan Kaul Śastri가 편집한 KSTS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관련 연구에 포문을 연 논문 ‘The Doctrine of the *Mālinīvijayottaratantra*’에서 Sanderson(1992)은 아비나바굽타가 트리카의 주요한 문헌으로서 취급하는, 그러므로 비이원론 샤이바 문헌의 정수로 볼 수 있는 이 탄트라가, 반대로 이원론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 최근에는 이 탄트라의 몇몇 장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수반한 재교정본(Vāsudeva 2004, Oxford 대학 박사 논문의 교정본)이 샤이바 탄트라 요가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트리카의 다른 주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싯다요게슈와리마타』(*Siddhayaogeśvarīmata*)는 옥스포드(Oxford) 대학의 또 다른 박사 논문의 주제(Törzsök 1999)였는데, 이 편집본의 몇몇 부분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박사학위 논문의 공식적 출판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 또 다른 주요 트리카 경전인 『탄트라삿브하바』(*Tantrasadbhāva*)는 마크 디지콥스키(Mark Dyczkowski)가 부분적으로 가 편집했다고 하는 전자 전사본(electronic transcription)이 목타보다 전자 도서관(Muktabodha digital Library)에서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이용 가능하기는 하지만 편집본이 제대로 출판된 적은 없다. 이 이텍스트 덕분에 『탄트라삿브하바탄트라』(*Tantrasadbhāvatāntra*)는 샤이바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널리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 광범위한 경전에 대한 (부분적이더라도) 연구와 비판 교정본은 아주 긴급하게 요구되는 연구 과제의 하나

로 남아 있다²¹⁾.

트리카 전통에 귀속되는 주요 비정전적 저작으로 아비나비굽타의 『탄트라로카』(*Tantrāloka*)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문헌은 1918년과 1938년 사이에 마드후수 단 카울 샤스트리(Madhusūdan Kaul Śāstri)에 의해 출판된 이래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킨 만큼 몇 세대의 학자들을 좌절시키기도 한 매우 방대하고 아주 정교한 저작이다. 이 문헌의 유일하며 온전한 번역본은 놀리(Gnoli)가 한 작업으로, 1999년의 두 번째 개정본(초판은 1972년)은 철두철미하게 교정되었다.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탄트라로카』(*Tantrāloka*)의 부분들에 대한 최근의 다른 연구들로는 실번/파두(Silburn/Padoux)(1998)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번역과 카울라(Kaula) 의례에 관한 29장에 대한 두프케(Dupuche 2003)의 번역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물들은 분명 독자적으로 『탄트라로카』의 연구에 도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훌륭한 선구자적 연구였던 KSTS의 편집본에만 의지하지 않고 KSTS의 편집자와 관련 보조 연구자들에게 그 당시 미처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다른 사본들을 사용하여 아비나비굽타의 이 걸작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연구 주제로 살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여겨진다²²⁾. 무엇이 가능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

21) Goudriaan & Schoterman의 편집에 대한 리뷰 논문에서, Sanderson은 여신 지향적인 전통들 가운데에서, *Tantrasadbhāva*가 가장 토대가 되는 경전들 중에 하나이며, *Kubjikāmatatantra*가 속하는 *Paścimāmnāya* 전통 이후 문헌들은 연구하는 데에 이 문헌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Sanderson 2002:20). [역자의 박사논문에서 *Tantrasadbhāva*의 몇몇 장들이 비판 교정, 번역되었다.]

22) 왜냐하면 물론 KSTS에서 출판된 교정본들 외에도 Abhinavagupta의 제자였던 Kṣemarāja의 길고 풍부한 내용의 주석들을 포함, 다른 여러 문헌들과 관련해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문헌에 접근해야만 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견과 일치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 최근 National Mission for Manuscripts at the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에서 디지털 작업하여 이전까지 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Srinagar 컬렉션의 사본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귀중한 컬렉션의 자료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Mrinal Kaul의 노력이 있었음 또한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로서, 그리고 아비나바굽타의 저작들이 지니는 풍성함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연구물로서, 『탄트라사라』(*Tantrasāra*)를 시작하는 세 개의 계송들에 대한 60 페이지에 달하는 샌더슨의 주목할만한 해석[2005b]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트리카에서는 벗어나지만 바이라바 탄트라의 넓은 범주에 속하는 『피추마타 브라흐마야말라』(*Picumata Brahmayāmala*)는 그 중요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초기 문헌이다. 샤이바 전통에 대한 샌더슨의 훌륭한 개요에서 그는 (1998:672) 이미 이 탄트라를 ‘샤티가 처음으로 주체적 상태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주목했다. 이 문헌의 몇몇 장들의 교정본과 번역을 포함하는 단행본 분량의 첫 업적이 Hatley 2007이다. 이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미출판되었지만, 이미 이 분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인용되고 있다²³). 성적 의례와 함께 카팔리카(Kāpālika)의 장례물품의 사용과 카울라(Kaula)를 연상시키는 성적 분비물의 사용, 그리고 아마도 이 문헌 고유의 것으로서 분변의 사용을 검비하는 이 문헌의 매우 파격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틀리가 조심스럽게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저작으로 추정하는 (Hatley 2007*:211) 이 『브라흐마야말라』는 전혀 소수이거나 변방의 문헌이 아니었다. 이는 이 문헌이 몇몇 불교 탄트라들에서 재편되었다는 점²⁴), 트리카의 문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바굽타가 이 문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²⁵), 누

23) 여기에서 초기 탄트라 문헌의 Yoginī 신앙에 대한 가치있는 연구로 Hatley 논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White(2003)의 논문에서와 동일한 토대를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보다 더 탄탄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24) Sanderson 2001:44ff와 Hatley 2007*:176ff를 참조. 여전히 불교도들이 채택한 샤이바 자료들은 *Brahmayāmala* 자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Brahmayāmala*에서 떨어져 나와 남겨진,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다른 탄트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문헌적 역사가 매우 복잡한 (참고 Hatley 2007*:200-11) *Brahmayāmala*는, 그러나 더 이른 시기의 경전들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25) Abhinavagupta의 *Brahmayāmala*에 관한 인용과 언급에 대해서는 Hatley 2007*:211-13 (특히 각주 57번)과 237쪽의 1, 2번 각주들을 참조하라.

군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지만 이 문헌이 『니슈바사타트바상히타』와 몇몇 초기 불교 탄트라 자료들과 (주술 의례의 상세한 부분들에서부터 공유되는 언어적인 비규칙성 등의 범주에서) 매우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하틀리(Hatley)와 차바 키스(Csaba Kiss)가 진행하는 『브라흐마야말라』에 대한 연구는 뒤에서 언급할 ‘초기 탄트라(Early Tantr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기대된다²⁶⁾.

지난 삼 십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관심을 받아온 바이라바 탄트라 전통은 소위 서쪽 전승(paścimāmnāya)이라 불리는 전통이다. 이 전통의 탄트라들은 어느 정도 무작위로 1972년에 위트레흐트(Utrecht)의 Instituut voor Oosterse Talen of the State University 팀에 의해서 연구 주제로서 선택되었다. 주로 NGMPP에서 마이크로필름화한 네팔 사본에 근거한 몇 십년간의 지속적인 연구는 여러 중요한 출판물을 양산했다. 그 가운데에 특히, 『사트사하스라상히타』(Śaṭṣāhasrasaṃhitā)의 처음 여섯 개의 장들에 대한 교정본(Schoterman 1982)과 탄트라 문헌의 비표준 산스크리트에 대한 유용한 논의를 포함하는 전체 『쿠브지카마타탄트라』(Kubjikāmatatantra)에 대한 교정본(Goudriaan & Schoterman 1988)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적어도 한 동안은 고드리안(Goudriaan)과 쇼테르만(Schoterman)의 역할을 물려받아 Heilijgers-Seelen이 그들의 1988년에 교정했던 텍스트의 재교정본을 포함, 주석을 단 번역으로 『쿠브지카마타탄트라』(Kubjikāmatatantra)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한 단계 나아갔다. 이제 그 역할은 아마도 네덜란드 학자에서 마크 디지콥스키에게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완결될 필요가 있었던 『만타나바이라바』(Manthānabhairava)를 이루는 세계의 장(khaṇḍa)들 가운데 하나인 쿠마리카 장(Kumārikākhaṇḍa)에 대한 아마도 가장 긴 단일 편집본

26) 역주] Kiss가 작업한 *Brahmayāmala*의 3장, 21장, 그리고 45장에 대한 비판 교정본은 2015년에 Early Tantra Series로 출판되었다.

과 주석이 달린 번역본을 통해 지난 이십년간 서쪽 전승에 속하는 정전적 문헌들을 연구해 왔다. 샌더슨은 (Goudriaan과 Schoterman의 1998년 출판에 대한 그의 2002년 리뷰에서) 이 문헌이 그 기반이 되었을 더욱 근원적인 경전들이나 다른 초기의 문헌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보단 미출판된 『쿠브지카마타탄트라』의 일군의 탄트라의 많은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연구 성과는 분명 놀라운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전통에 속하는 문헌들의 유난히 많은 필사본들이 네팔에 남아 있다는 점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혹은 현재와 가깝게) 이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팔에서의 서쪽 전승의 중요성은 분명 힌두 탄트라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이 문헌을 편집하는 데에 많은 진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서쪽 전승(paścimāmnāya)의 쿠브지카(Kubjikā) 숭배보다 더 유명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있고 현재까지 진행형의 전통인 쉬리비드야(Śrīvidyā)는 여신 트리푸라순다리(Tripurasundarī)를 숭배하는 체계로, 샌더슨(1995:47)은 이 전통을 ‘중세와 현대 인도에서 탄트라 전통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있고 광범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수행은 본고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체계 역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역사는 전적으로 잊혀져 왔던 것이 아니라 점을 시사하는 쉬리비드야의 대중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전통에 대한] 새롭고 상세하며 역사적으로 민감한 연구가 여전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주제는 상대적으로 알렉시스 샌더슨의 논문에서 적은 페이지에 할애되었지만, 그는 또 다시 이 전통에 관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특히 Sanderson 2007a: 383-5와 Sanderson 2009:47-49). 이 전통에 속하는 개별 문헌들에 대한 유용한 최근의 번역과 연구들에는 Padoux(1994)의 『요기니흐리다야』(Yoginīhṛdaya)와 그에 대한 주석인 아므리타난다(Amṛtānanda)의 『디피카』(Dīpikā)에 대한

연구, 웨버(Weber 2010)의 『파라슈라마칼파수트라』(*Paraśurāmakalpasūtra*) 연구와, 『바마케슈와리마타』(*Vāmakeśvarīmata*)를 번역한 핀(Finn 1986; Brunner 1992에서 언급된 주의 사항 참조 필요)의 작업이 포함된다.

칼리/칼라삼카르쉬니(*Kālī/Kālasaṃkarṣiṇī*)의 탄트라들에 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통도 보다 포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 탄트라 그룹 중에서 가장 긴, 실은 명백하게 어떤 전통을 포함하더라도 현존하는 탄트라 경전들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인 『자얏라타야말라』(*Jayadrathayāmala*)(네 개의 Ṣaṭka로 구성되어 각각은 대략 육천송)는 샌더슨에 의해서 그의 가장 이른 출판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네트라탄트라』의 기원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서 Sanderson 2005의 부록에서 다룬 그 증거는 카쉬미르 버전인 [『자얏라타야말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Ṣaṭka에서 나온 것이다. 올라 세르바에바-사라오기(Olga Servaeva-Saraogi)도 미출판된 박사논문(2006)에서 『자얏라타야말라』를 다뤘다. 『크라마스브하바』(*Kramasadbhāva*)와 『데비드비아르드하샤타카』(*Devīdyardhaśataka*)와 같이 이 전통에 속하는 단편의 탄트라 몇몇은 묵타보다 전자 도서관(Muktabodha Digital Library)를 통해서 마크 디지털 스키의 전자 가편집본들(Preliminary electronic editions)로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기초 연구 작업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여러 책들은 주로 샤이바 탄트라 요가를 다루고 있다 (Vāsudeva 2004, Heilijgers-Seelen 1994).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하다. 맬린슨(Mallinson 2007)과 키스(Kiss 2009)의 작업들은 탄트라 요가와 하타 요가 사이의 관계와 후자로 통합되는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근래에 화이트(White 2009)는 넓은 범위에서 탄트라 요가의 역사를 다루는 시도를 했는데, ‘탄트라의 기원과 근본적 성격은 수행자가 자신의 몸에서 다른 이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에 있다’는 그의 자극적인 가설은 아마도 자료를 선택적이고 한 쪽으로 치우치게 읽은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플루드(Flood 2006)도 역시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탈문헌적 개념들에 크게 중점을 두고 신체와 관련한 탄트라 수행들을 야심차게 취급하고 있지만, 인도학을 ‘무한하게 해석가능한 것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탈정초주의적(post-foundational) 이해’로 옮겨가고자 하는 이러한 종류의 시도는 그 근거들이 여전히 취약할 때는 시기상조의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

보다 철학적인 저작들에 대한 연구들은 꽤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 분야에서 또 다시 많은 일차 문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장된 사이버바싯단타의 이원론적 이론들을 체계화하는 데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던 두 주석가의 주석서들이 포함된다. 탄트라 문헌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산문형식의 주석(7-8세기로 추정, Sanderson 2006b 참조)인 『스바암브후바수트라상그라하』(Svāyambhuvasūtrasaṅgraha, Filliozat 1994)의 주석서를 쓴 샷드요즈요티히(Sadyojyotiḥ)와 아비나바굽타와 동시대의 인물로 아고라쉬바(Aghoraśiva)와 같은 12세기 남인도 학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카슈미르 출신의 라마칸타(Rāmakaṇṭha)가 그들이다. 라마칸타의 철학적 작품들(*Nareśvaraparīkṣā*와 *Mokṣakārikā*)에 대한 주석들은 12세기 초반부터 알려졌으나, 『350송 칼룻타라』(*Sārdhatrisatikālottara*, Bhatt 1979에서 교정됨), 『마탕가파라메슈와라』(*Mataṅgapārameśvara*, Bhatt 1977와 1982 교정본), 『키라나탄트라』(*Kiraṇatantra*, Goodall 1998에서 편집·번역), 『타트바트리아니르나아비브릿티』(*Tattvatrayanirṇayavivṛti*, Goodall, Kataoka, Acharya, Yokochi 2008에서 편집·번역)에 대한 그의 저작들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마칸타의 철학과 관련해 문헌학적으로 탄탄한 연구로, ‘자아’ 개념을 비판하는 불교에 대응한 그의 대답에 초점을 맞춘 Watson 2006은 본래 사상가로서 사이단티카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서 [Rāmakaṇṭha의] 명성을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이원론의 철학적 전통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논의하는 문헌들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아비나바굽타의 지적 매력과 부분적으로는 『이슈와라프라티야브히즈나카리카』(*Īśvarapratyabhijñākārikā*)와 그에 대한 방대한 양의 주석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심미학적으로 매력적인 윗팔라데바(Utpaladeva)의 ‘재인식 [Pratyabhijñā] 교설’의 매력 때문인데, 이는 [이 교설이] 영감과 권위를 받았던 (오랫동안 아직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가치가 저평가된) 탄트라 경전들과는 독립된 철학적 체계로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주요한 최근의 몇몇 출판물들로, 재인식론(Pratyabhijñā)에 대한 가장 우수한 출판물들 가운데에서도 Hanneder 1998와, 윗팔라데바(Utpaladeva)와 아비나바굽타(Abhinavagupta)에 대한 토렐라(Torella)의 일련의 연구들(2002, 2004, 2007a, 2007b, 2007c, 2007d)과 이자벨라 라티에(Isabelle Ratié) 여러 논문들을 꼽을 수 있다. 이 전통의 독창적인 저작인 소마난다(Somānanda)의 『쉬바드리슈티』(*Śivadr̥ṣṭi*)에 대한 존 네멕(John Nemeč)의 새로운 비판 교정본(Somānanda 저작의 첫 두장을 편집·번역했던 미출판 박사논문 Nemeč 2005를 전체적으로 교정)도 곧 출판될 예정이다²⁷⁾.

또한 내놓고 정통성을 표방하고, 베다에 친화적인 판차라트라도 ‘탄트라적’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이 바이슈나바 전통에 대한 교정본과 번역본, 관련 학문적 연구는 훨씬 일찍 출판되었고, 그 출판물들도 종종 인도 학과는 다른 분야의 연구 기관들에서 나왔다(폰디체리에 위치한 프랑스국립 극동연구소가 출현하기 이전에 많은 양의 샤이바싯단타와 관련된 출판물은 오히려 Devakottai를 기반으로 하는 Śaivasiddhāntaparipālanasaṅgha와 같은 종교학 협회들에서 나왔다). 그에 따라 아디아르 라이브러리-리서치 센터(Adyar Library and Research Centre)는 1916년에 『아히르부드흐니아상히타』

27) 역주] John Nemeč의 *Śivadr̥ṣṭi*에 대한 비판 교정본과 번역은 *The Ubiquitous Śiva: Somānanda's Śivadr̥ṣṭi and His Tantric Interlocutors*라는 제목으로 2011년 출판되었다.

(*Ahīrbudhnyasamhitā*)를 출판했고(재편집본은 Kṛṣṇamacharya 1966), 1959년에는 『락슈미탄트라』(*Lakṣmītantra*)를 출판, 그에 대한 번역을 그 후로 십년이 넘어 출판했으며(Gupta 1972); 1969년에 『사나트쿠마라상히타』(*Sanatkumārasamhitā*)를 출판했다(Kṛṣṇamacharya 1969). 『비슈누상히타』(*Viṣṇusamhitā*)는 트리반드럼 산스크리트 시리즈(Trivandrum Sanskrit Series)에서 1925년에 나왔고(Ganapati Śāstri 1925); 『자야키야상히타』(*Jayākhyasamhitā*)는 1931년에 바로다(Baroda)에서 게크워드 오리엔탈 시리즈(Gaekwad's Oriental Series)로 출판되었다(Kṛṣṇamacharya 1931). (물론 이 목록은 모든 출판물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상히타들에 초점을 맞춘 거의 단행본 분량의 연구들로는 Matsubara 1994, Rastelli 1999와 2006, Bock-Raming 2002, 그리고 Czerniak-Drożdżowicz 2003이 포함되며, 『파드마상히타』(*Pādmāsamhitā*)에 기반을 둔 것이라 주장되는 짧은 의례서(*paddhati*)는 트리파티(Tripathi) 2004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다. 이들 중에 어떤 연구도 그 연구 결과가 앞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아차리아(Diwakar Acharya)가 새로 발견한 이른 네팔 사본들에서 전승되는[이 전통의] 경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판차라트라의 철학적 작품들도 또한 등한시 되지 않았다. 오베르함머(Oberhammer)가 지난 십 오년에 걸쳐 저작·편집했던 일련의 긴 출판물들은 판차라트라와 제한적불이론 베단타(*Viśiṣṭādvaita Vedānta*) 사이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탐구해 왔다; 이 점에 대해서는 Oberhammer 2002와 Oberhammer & Rastelli 2007에서 취합된 논문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야무나(Yāmuṇa)가 그의 저서 『아가마프라만야』(*Āgamaprāmāṇya*)에서 논의한 판차라트라의 경전들에 대한 정교한 해명은 메스키타(메로 들면 Mesquita 1980)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며, 벵카타나타(Veṅkaṭanātha)가 그의 저작 『판차라트라락샤』(*Pāñcarātrarakṣā*)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논쟁한 부분은 Rastelli 2008에 의해 다뤄졌다. 이들은 남인도 저자들이었으나, 카슈미르

에서는 다른 교설적 이견을 지닌 판차라트라에 대한 증거들도 발견된다. 이 전통에 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바마나닷타(Vāmanadatta)가 지은 비슈누에 바쳐진 불이원론적 찬가로 『사트바타상히타』(Sātvatasamhitā)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²⁸⁾, 카슈미르 지역의 샤이바 저자들(특히 불이원론자들)과 판차라트라이카들에 의해서도 종종 긍정적으로 인용된다. 이차 문헌들에서 『삼빗프라카샤』(Samvitprakāśa)라고 보통 언급되는 이 찬가²⁹⁾는 비판 교정보과 영어 번역을 약속했던 Torella 1994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샤이바와 샤이바화된 소수 전통들에 대해 한 두마디를 첨언하자면, 이미 『사우라상히타』(Saurasamhitā)라고 하는 현존하는 태양계 경전(혹은 샤이바-태양계)에 대해선 앞서 언급했지만, 아직 액막이 의식과 뱀독과 관련된 경전들인 브후타탄트라(Bhūtantra)들과 가루다탄트라(Gāruḍatantra)들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통들이 매우 넓게 알려진 개념 체계인 사다쉬바(Sadāśiva)의 다섯 얼굴들 중에 하나에 배정된 샤이바 경전의 각 분파들 중 하나라는 점(예를 들면, Hanneder 1998:17ff와 195ff)을 보아도, 이 탄트라들이 상당한 중요성을 지녔던 적이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현대 학문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완전히 등한시 되어 왔다. 하지만 마이클 슬로버(Michael Slouber)의 연구(2007과 <http://www.garudam.com/page/Home.html>)는 탄트라를 학제간의 접근으로 증명하는 대부분의 시도들보다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더욱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방식으로, 이 전통과 관련한 동시대의 수행들에 대한 증거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문헌적 자료들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결합하면서 이 자료에서 무엇이 존속하는 지에 관한 탐구에

28) Sanderson 2007a:208참조. Vāmanadatta의 다른 Pāñcarātra 정전적 자료에 대해서는 Sferra 1998을 참조.

29) 하지만 Sanderson(2007a:280)은 이것이 찬가의 첫 번째 섹션의 제목-그가 Viṣṇustuti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으로만 언급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Viṣṇustuti라는 제목은 사본이나 산스크리트 저자들이 언급하는 어떤 참고자료에서도 증명되지 않는다.

포문을 열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에워싸는 출판된 문헌들의 홍수 속에서 일반적 연구들은 분명 가설적인 것이다. 온라인상의 검색 가능한 이텍스트(e-text)들의 증가는 분명 도움이 된다 -GRETIL(Göttingen Register of Electronic Texts in Indic Languages)과 Muktabodha Indological Research Institute와 French Institute of Pondicherry, 그리고 Centre for Tantra Studies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은 학문적 연구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강독을 대체할 수 없는 ‘그래핑(grepping)’에 관한 주의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몇몇의 훌륭한 예를 제외하곤 출판된 편집본들보다 더 많은 오타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연구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백과사적전 성격을 띠었던 ‘Śaivism and the Tantric Traditions(샤이비즘과 탄트라 전통들)’이라는 야심 찬 (그럼에도 적절한) 제목의 논문(Sanderson 1988)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미출판된 (현재까지도 중요 부분이 미출판된) 많은 양의 일차 자료를 기반으로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에 대한, 감질나게 간략해서 위엄있는 개요를 보여준다. 가빈 플루드(Gavin Flood)의 책(1996)이 탄트라 전통들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힌두이즘’이란 일반 연구물들 가운데에서 두드러지며, 보통 이상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였고, 그것들에 대해 박식한 정보를 준다. 비스바덴(Wiesbaden) 시리즈인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는 본고 논의에 중첩되는 두 개의 섹션을 다루는 ‘*Hindu Tantric and Śākta Literature*’(Goudriaan & Gupta 1981)와 ‘*Medieval Religious Literature in Sanskrit*’(Gonda 1977)라는 두 권을 포함한다. 이 중 후자는 판차라트리와 샤이 바싯단타의 ‘아가마’라는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고자 시도하지만, 이 중에서 몇몇 초기의 샤이바싯단타 작품들(Nīśvāsa pp.33-6와 *Kālotara*와 *Sarvajñānottara* pp. 38-9)을 이 전의 것으로 분류했고 이는 앞에서 주지의 사실로 명시했듯이

다른 초기 샤이바 탄트라 전통들로부터 확연히 샤이바싯단타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샤이비즘에 국한해서 특정 전통에 초점을 맞춘, 더 최근의 것으로는 ‘*The Canon of the Śaivāgama and the Kubjikā Tantras of the Western Kaula Tradition*’(Dyczkowski 1988)을 꼽을 수 있다. 힌디어를 하는 사람들에게겐 고티나타 카비라자(Gopinātha Kaviraja 1972)가 만든 문헌명들의 주해를 단 목록은 좀 구식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용한 자료이며 브라자발라브하 드비베디(Vrajavallabha Dvivedi, 2001)의 최근 연구도 있다. 탄트라 전통들에 관해 좀더 친숙해 지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기에 좋은 논문들로 샌더슨의 내용이 아주 풍부한 ‘*The Śaiva Exegesis of Kashmir*’(2007a)와 이보다 좀 더 길고 최근의 것으로, 더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제호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다루는) ‘*The Śaiva Age: The Rise and Dominance of Śaivism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샤이바 시대: 초중기의 샤이비즘의 흥기와 지배)(2009)’ 논문을 들 수 있다. 제프리 사무엘(Geoffrey Samuel) *The Origins of Yoga and Tantra; Indic Religions to the Thirteenth Century*(2008)는 개괄을 약속하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차 원전자료 보다는 이차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 ‘*Tantra in Practice*’(White 편집 2002)란 단행본은 본고에서 한정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방대한 범위의 작품들에 대한 번역을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힌두 탄트라에 대한 책 분량의 가장 최근 연구인 André Padoux 2010는 특히 샤이비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저자의 오래되고 깊은 경험에서 기반한 묘사로 도움을 준다. 샤이비즘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본고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차 문헌들을 언급하는 상세한 서지학적 연구는 Shaman Hatley 2010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분야의 성숙도는 흔히 지금껏 생산되어 온 참고문헌 작품들에 의해서도 판단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말에 이르기 까지 (The Āgama Encyclopaedia

라는 제목 아래 근래에 개정·재판된 열두권 분량의 단편들을 묶은 반만 정리된 Āgama Kośa와 같이 오해를 일으킬만한 제목을 붙인 수많은 저작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탄트라 힌두이즘에 대한 사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00년에 처음으로 ‘Tāntrikābhidhānaśa’의 첫 권이 출판되었고, 2004년에 두 번째 권이 나왔으며, 두 권에 이어 아마도 2011년에 세 번째 권이 출판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⁰⁾.

이 연구수단은 매권을 거듭할수록 그 내용의 풍부함이 높아져 왔으며, 출판된 일차 자료 뿐만 아니라 출판되지 않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통해 사전으로서 기대되는 것 이상을 뛰어 넘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통시적인 발전과 정을 상당히 논의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샤이바와 바이슈나바, 불교 탄트라의 각각의 전통들은 현재 학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스트릭만(Strickmann 1996, p.24)이 ‘isolement hermétique[은폐된 고립]’라고 불렀던 측면에서 대개 다뤄진다. 스트릭만은 산스크리트로 쓰인 이용가능한 샤이바 탄트라 문헌들의 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불교 전문가의 도움을 추구했다³¹⁾.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아마도 불교라고 정의되는 것에 한정해서 머물기를 선호하므로 그가 제안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예견은 대체로 정확했음이 증명되었다. 샤이바와 바이슈나바, 그리고 불교 탄트라들을 함께 연구하는 폭넓은 접근의 가치는 샌더슨의 세 개의 선구적인 논문들(1994, 2001, 그리고 2009)에서 모범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다. 첫번째 논문[1994]은 샤이바와 불교 탄트라 경전들의 부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관계들을

30) 역주] 3권은 2011년에 출판되었다.

31) 동일한 문장에서 Strickmann은 “Je suis convaincu que les āgama du Sivaïsme et les tantra du bouddhisme médiéval représentent simplement différentes versions, différentes rédactions d’une seule et même chose(나는 샤이바의 아가마들과 중기 불교 탄트라들이 같은 것의 다른 버전, 다른 교정본이라는 데에 확신한다.)”라고 쓴다.

예시하고, 두번째 것[2001]은 그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논문의 제목 ‘History through Textual Criticism in the Study of Śaivism, the Pañcarātra and the Buddhist Yoginītantras’(텍스트 비평주의를 통한 사이비즘과 판차라트라, 불교 요기니 탄트라)의 역사 연구에서 천명하듯이, 그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다. 세번째 논문[2009]은 거의 책 분량의 ‘The Śaiva Age’인데, 샌더슨은 사이바 탄트리즘의 흥기를 불러 일으킨 요소들을 조사하고, 그의 이전 논문들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단지 문헌만이 아니라 아주 넓은 범위의 자료들과 원전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종교 전통들이 많은 경우 채택과 발전 방식을 통해서 이 사이바의 흥기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 수가 늘고 있는 다른 여러 학자들도 탄트라 전통들을 이처럼 연구하는 방식이 생산적임을 보여줬다(예를 들면, Tomabachi 2007). 특히 Sanderson 2001에서 영감을 얻은 본고의 저자들은³²⁾ 프랑스와 독일 합작으로 ‘Early Tantra: Discovering the Interrelationships and common Ritual Syntax of the Śaiva, Buddhist, Vaiṣṇava and Saura Traditions’(초기 탄트라: 사이바, 불교, 바이슈나바, 사우라 전통 사이의 상호관계와 공통 의례 구조의 발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곧 다양한 탄트라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들과 연계하여 첫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³³⁾.

32) Sanderson 2001:38의 각주 50번에서 “사이바와 판차탄트리카 상히타들에서 가르치는 의례 체계들은 단일한 ‘탄트라적’ 언어의 두가지 표현 방식의 모습을 가지므로 그 형태론과 구문론에 있어서 서로 매우 밀접하게 닮아 있다’고 말한다.

33) 프랑스 독일 국제 지원국(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and Agence Nationale pour la Recherche)의 지원을 받은 이 합동 프로젝트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헌들의 주해를 포함한 교정본들이 이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결과물들이며, 여러 참가자들의 연구들로 구성될 불륨은 곧 *Tantric Studies* 저널의 특별호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수 학자의 논문들로 구성된 이 결과물은 2016년에 “Tantric Studies, Fruits of a Franco-German Collaboration of Early Tantra”라는 제목의 책으로 Collection Indologie 131; Early Tantra Series 4로 출판되었다.]

샌더슨은 다양한 탄트라 전통들로부터 찾은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예를 통해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정한 기간 동안의 자료들은 우세하게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로 된) 텍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관련 문헌들의 많은 수는 아직 미출판되었거나 사본적 전거들을 인용하지 않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약을 포함한 편집본들이다³⁴).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연구 과제 중의 하나는 보다 많은 탄트라 문헌들을 사본들로부터 편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기계적이고 문헌학적으로 고된 중노동만은 아니다. 힌두 탄트라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단언컨대 반드시 문헌학자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신중하고 비판적인 독자이며, 언어에 민감하고, 사본 정보를 정밀하게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이들은 사본 외의 (예를 들면 조각이나 비문 등) 다른 일차 자료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역사와 그러한 연구의 문제점들과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통이 어떤 문맥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발전들에 대한 감수성 없이는 탄트라 작품을 편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트라 문헌을 편집을 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문헌적인 (번역과 주해작업을 포함하는) 시도는 그러므로 탄트라리즘의 역사를 도식으로 나타내는 ‘보다 상위의’ 과업에만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노력들은 간단하게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것들이다.

34) 몇 가지 예시로, *Kiraṇatantra*의 남인도본의 59장과 같은 전체 챕터들은 예를 들어 많은 남인도 사본들을 근거로 해 만들어졌으나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참고문헌

ACHARYA, Diwakar

2005. ‘The Role of Cult and the Image on the Mathura Pillar Dated Gupta Era 61’ In *Indo-Iranian Journal*, Vol. 48, pp. 207-22.

BAKKER, Hans

2000. ‘Somaśarman, Somavaṃśa and Somasiddhānta: A Pāśupata Tradition in Seventh-century Dakṣiṇa Kosala. Studies in the Skandapurāṇa III’ In Ryutaro Tsuchida and Albrecht Wezler (eds), *Harānandalaharī. Volume in Honour of Professor Minoru Hara on His Seventieth Birthday*, Reinbek: Dr. Inge Wezler Verlag für Orientalistische Fachpublikationen, pp. 1–19.

BARAZER-BILLORET, Marie-Luce, DAGENS, Bruno, and LEFEVRE, Vincent

2004. ‘Avec la collaboration de S. Sambandha Śivacarya’, *Dīptāgama Tome I Chapitres 1 à 21*, Publications du département d’Indologie 81.1,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2007. ‘Avec la collaboration de S. Sambandha Śivacarya et la participation de Christèle BAROIS’, *Dīptāgama Édition critique Tome III Chapitres 63 à III*, Collection Indologie, Vol. 81, No. 3,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2009. ‘Avec la collaboration de S. Sambandha Śivacarya et la participation de Christèle Barois’, *Dīptāgama Édition critique Tome II Chapitres 22 à 62*, Collection Indologie, Vol. 81, No. 2, Pondicherry: Institut François de Pondichéry.

BHATT, N. R.

1977. *Matanḡapārameśvarāgama (Vidyāpāda) avec le commentaire de Bhaṭṭa Rāmakaṅṭha*, Publications de l'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56,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1979. *Sārdhatriśatikālottarāgama avec le commentaire de Bhaṭṭa Rāmakaṅṭha*, Publications de l'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61,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1982. *Matanḡapārameśvarāgama (Kriyāpāda, Yogapāda et Caryāpāda) avec le commentaire de Bhaṭṭa Rāmakaṅṭha*, Publications de l'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65,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BHATT, N. R., FILLIOZAT, Jean, and FILLIOZAT, Pierre-Sylvain

2005. *Ajītamahā Tantram. The Great Tantra of Ajīta* (5 volumes), Kalāmūlāsāstra Series 47,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 Motilal Banarsidass.

BISSCHOP, Peter

2005. 'Pañcārthabhāṣya on Pāśupatasūtra 1.37–39 Recovered from a Newly Identified Manuscript',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No. 33, pp. 529–51.

2007. 'The Sūtrapāṭha of the Pāśupatasūtra', *Indo-Iranian Journal*, No. 49, pp. 1–21.

BOCK-RAMING, Andreas

2002. *Untersuchungen zur Gottesvorstellung in der älteren Anonymliteratur des Pañcaratra*, Wiesbaden: Harrassowitz.

BRUNNER, Hélène (ed. and trans.)

1963, 1968, 1977, and 1998. *Somasāmbhupaddhati*. 4 vols: *Première Partie*.

Le rituel quotidien dans la tradition śivaïte de l'Inde du Sud selon Somaśambhu; Deuxième Partie. Rituels Occasionnels dans la tradition śivaïte de l'Inde du Sud selon Somaśambhu I: Pavitrārohaṇa, Damanapūjā et Prāyaścitta; and Troisième Partie. Rituels occasionnels dans la tradition śivaïte de l'Inde du Sud selon Somaśambhu II : dīkṣā, abhiṣeka, vrtoddhāra, antyeṣṭi, śrāddha; and Rituels dans la tradition śivaïte selon Somaśambhu. Quatrième partie: rituels optionnels: pratiṣṭhā, Publications de l'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No. 25,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Indologie.

1990. 'L'image divine dans le culte 'agamique de Śiva: Rapport entre l'image mentale et le support du culte', in *L'image divine. Culte et méditation dans l'hindouisme*, André Padoux (ed.), Paris: É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pp. 9-29.

BRUNNER, Hélène

1992. *Review of I. Louise M. Finn, The Kulacūḍāmaṇi Tantra and The Vāmakeśvara Tantra, with the Jayaratha Commentary, – Introduced, Translated and Annotated by Louise M. Finn, Wiesbaden: Harrassowitz (1986), and II. Michael Magee, Vamakesvarimatam, text with English translation (Tantra Granthamala No. 11. Varanasi, 1986), in Indo-Iranian Journal, No. 35, pp. 299-313.*
1999. 'Le Parārthanityapūjāvidhi, Règle pour le culte quotidien dans un temple, in Françoise L'Hernault and Marie-Louise Reiniche', *Tiruvannamalai, un lieu saint śivaïte du Sud de l'Inde. 3 Rites et fêtes*,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56.3,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p. 261-340.

BÜHNEMANN, Gudrun

2000. *The Iconography of Hindu Tantric Deities Volume I: The Pantheon of the Mantramahodadhi*, Gonda Indological Studies IX, Groningen: Egbert Forsten.

2001. *The Iconography of Hindu Tantric Deities Volume II: The Pantheons of the Prapañcasāra and the Śāradātilaka*, Gonda Indological Studies IX, Groningen: Egbert Forsten.

2003a. *The Hindu Pantheon in Nepalese Line Drawings: Two Manuscripts of the Pratiṣṭhālakṣaṇasārasamuccaya*, Varanasi: Indica Books.

2003b. *Maṇḍalas and Yantras in the Hindu Traditions*, Leiden: Brill.

CZERNICAK-DROZDZOWICZ, Marzenna

2003. *Pāñcarātra Scripture in the Process of Change: A Study of the Paramasamhitā*, Publications of the De Nobili Research Library 31, Vienna: The De Nobili Research Library.

DAGENS, Bruno and BARAZER-BILLORET, Marie-Luce

2000. *Le Rauravāgama Un traité de rituel et de doctrine śivaïtes* (2 volumes), Publications du département d'Indologie, 89, pp. 1-89.2,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DAVIDSON, Ronald M.

2001. *Indian Esoteric Buddhism: A Social History of the Tantric Move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UPUCHE, John R.

2003. *Abhinavagupta: The Kula Ritual as Elaborated in Chapter 29 of the Tantrāloka*, Delhi: Motilal Banarsidass.

DYCZKOWSKI, Mark S. G.

1988. *The Canon of the Śaivāgama and the Kubjikā Tantras of the Western Kaula Tradi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9. *ManthānabhairavaTantram Kumārikākhaṇḍaḥ: The Section Concerning the Virgin Goddess of the Tantra of the Churning Bhairava*, 14 Vols, New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D.K. Printworld.
- FILLIOZAT, Pierre-Sylvain (ed. and trans.)
1994. *Svāyambhuvasūtrasaṃgrahaḥ, vidyāpādaḥ, sadyojyotiṣkṛtaṭīkāśahitaḥ. The Tantra of Svayambhū, vidyāpāda With the Commentary of Sadyojyoti*, Kalāmūlāsāstra Series 13,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and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 FINN, Louise M.
1986. *The Kulacūdāmaṇi Tantra and the Vāmakeśvara Tantra with the Jayaratha Commentary*, Wiesbaden: Harrassowitz.
- FLOOD, Gavin
1996. *An Introduction to Hindu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The Tantric Body: The Secret Tradition of Hindu Religion*, London: I.B. Tauris.
- GANAPATI, Śastri, T.
- 1920, 1922, and, 1925. *Āryamañjuśrīmūlakalpa*, Trivandrum Sanskrit Series 70, 76 and 84, Trivandrum: The Oriental Manuscript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Travancore.
- GNOLI, Raniero
1999. *Abhinavagupta, Luce dei Tantra. (Tantrāloka)*, Biblioteca Orientale 4. Milan: Adelphi Edizioni.

GOODALL, Dominic

1998. *Bhaṭṭa Rāmakaṇṭha's Commentary on the KiraṇaTantra. Volume I: chapters 1–6. Critical Edi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 Publications du département d'Indologie 86.1,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2004. *The ParākhyaTantra. A Scripture of the Śaiva Siddhānta: A Critical Edi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 Collection Indologie 98,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2009. 'Who is Caṇḍeśa?', in Shingo Einoo, (ed.), *The Genesis and Development of Tantra*, Tokyo: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pp. 351–423 and 44 plates.

2015. *The Niśvāsattvasaṃhitā, The Earliest Surviving Śaiva Tantra*,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Asien-Afrika-Institut, Universität Hamburg

2016. 'How the Tattvas of Tantric Śaivism Came to be 36: The Evidence of the Niśvāsattvasaṃhitā In Goodall & Isaacson, (ed), *Tantric Studies –Fruits of a Franco-German Collaboration on Early Tantra*,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Asien-Afrika-Institut, Universität Hamburg, pp.77-112.

GOODALL, Dominic and ISAACSON, Harunaga

2007. 'Workshop on the Niśvāsattvasaṃhitā: The Earliest Surviving Saiva Tantra?', *Newsletter of the Nepal-German Manuscript Cataloguing Project*, No. 3, pp. 4–6.

GOODALL, Dominic, KATAOKA, Kei, ACHARYA, Diwakar, and YOKOCHI, Yuko

2008. ‘A First Edition and Translation of Bhaṭṭa Rāmakaṇṭha’s Tattvatrayanirṇayavivṛti, A Treatise on Śiva, Souls and Māyā, with Detailed Treatment of Mala’, *Journal of South Asian Classical Studies*, No. 3, pp. 311–84.
- GOUDRIAAN, Teun
1973. ‘Tumburu and His Sisters’,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No. 17, pp. 49–95.
1985. *The Vīṇāśikhāntā A Śaiva Tantra of the Left Current: Edited with an Introduction and a Transla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 GOUDRIAAN, Teun and GUPTA, Sanjukta
1981. *Hindu Tantric and Śākta Literature*,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 II, No. 2, Wiesbaden: Harrassowitz.
- GOUDRIAAN, Teun and SCHOTERMAN, J. A.
1988. *The Kubjikāmata Tantra: Kulālikāmnāya Version*, Leiden: Brill.
- HANNEDER, Jürgen
1998. *Abhinavagupta’s Philosophy of Revelation: An Edi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 of Mālinīśloka-vārtika I, 1–399*, Groningen Oriental Series Volume XIV, Groningen: Egbert Forsten.
- HATLEY, Shaman
- 2007*. *The Brahmayāmalatantra and Early Śaiva Cult of Yoginī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published PhD thesis.
2010. ‘Tantric Śaivism in Early Medieval India: Rec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Religion Compass*, No. 4, pp. 1–14.
- HEILJGERS-SEELEN, Dory
1994. *The System of Five Cakras in Kubjikāmata Tantra 14–16*, Groningen

Oriental Series 9, Groningen: Egbert Forsten.

KISS, Csaba

2015. *The brahmayāmalatantra on Picumata volume II, The Religious Observances and Sexual Rituals of the Tantric Practitioner: Chapters 3, 21, and 45*, Collection Indologie 130, Early Tantra Series 3,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Asien-Afrika-Institut, Universität Hamburg

LUO Hong and TOMABECHI, Toru

2009. *Candrakīrti's Vajrasattvanīṣpādanasūtra (Vajrasattvasādhana) Sanskrit and Tibetan Texts*, Sanskrit Texts from the Tibetan Autonomous Region, No. 6, Beijing/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MALLINSON, James

2007. *The Khecarīvidyā of Ādinātha: A Critical Edi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 of an early text of haṭhayoga*, Abingdon: Routledge.

MATSUBARA, Mitsunori

1994. *Pāñcarātra Saṃhitās & Early Vaiṣṇava Theology with a Translation and Critical Notes from Chapters on Theology in the Ahirbudhnya Saṃhitā*, Delhi: Motilal Banarsidass.

MESQUITA, Roque

1980. 'Yāmuna's Vedānta and Pāñcarātra' In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No. 24: 199–224.

MIRNIG, Nina

2009*. *Liberating the Liberated: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Cremation and Ancestor Worship in the Early Śaiva Siddhānta: Analysis, Texts*

- and Translations* Oxford: unpublished doctoral thesis.
- MULLER, Jean-Pierre and GOODALL, Dominic
2005. *The Śaiva Manuscripts of Pondicherry: Les manuscrits śivaïtes de Pondichéry*, Pondicherry: École française d'Extrême- Orient /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NEMEC, John
2005*. *Śaiva Arguments against the Grammarians: Somānanda's Śivadṛṣṭi Chapters One and Two*, University of Philadelphi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2009. 'Translation and the Study of Indian Relig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No. 77, pp. 757–80.
- OBERHAMMER, Gerhard
2002. *Pāñcarātra and Viśiṣṭādvaitavedānta*,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694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r. 40,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OBERHAMMER, Gerhard and RASTELLI, Marion
2007. *Studies in Hinduism IV: On the Mutual Influences and Relationship of Viśiṣṭādvaita Vedānta and Pāñcarātra*,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756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r. 54,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PADOUX, André
1995. *Le coeur de la yoginī: Yoginīhṛdaya, avec le commentaire Dīpikā d'Amṛtānanda*, Publications de l'Institut de civilisation indienne: Série

in-8o; fasc. 63, Paris: De Boccard.

2007. ‘Hélène Brunner – Une vie, une œuvre’, in *Mélanges tantriques à la Mémoire d’Hélène Brunner: Tantric Studies in Memory of Hélène Brunner*, Dominic Goodall and André Padoux (eds), Collection Indologie 106, Pondicherry: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pp. 15–26.

2010. *Comprendre le tantrisme*, [Paris:] Éditions Albin Michel.

RASTELLI, Marion

1999. *Philosophisch-theologische Grundanschauungen der Jayākhyaśaṃhitā: Mit einer Darstellung des täglichen Rituals*,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668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o. 33,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6. *Die Tradition des Pāñcarātra im Spiegel der Pārameśvarasāṃhitā*,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748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o. 51,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8. ‘Von der Offenbarung Gottes zur “Vedisch-Orthodoxen” Tradition: Zur Begründung der Autorität der Tradition des Pāñcarātra’, in Gerhard Oberhammer and Marcus Schmücker (eds), *Glaubensgewissheit und Wahrheit in religiöser Tradition: Arbeitsdokumentation eines Symposiums*,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775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o. 60,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ATIE, Isabelle

2007a. ‘La mémoire et le Soi dans l’Īśvarapratyabhijñāvimarsinī d’Abhinavagupta’,
Indo-Iranian Journal, No. 49 (2006), pp. 39–103.

2007b. ‘Otherness in the Pratyabhijñā Philosophy’ I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No. 35, pp. 313–70.

2007b. ‘Remarks on Compassion and Altruism in the Pratyabhijñā Philosophy’
I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No. 37, pp. 349–66.

2010. “‘A five-trunked, four-tusked elephant is running in the sky’ How
Free is Imagination According to Utpaladeva and Abhinavagupta?’ In
Asiatische Studien/ Études Asiatiques, No. 64, pp. 341–85.

SAMUELS, Geoffrey

2008. *The Origins of Yoga and Tantra: Indic Religions to the Thir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NDERSON, Alexis

1985. ‘Purity and Power among the Brahmans of Kashmir’ In *The Category
of the Person: Anthropology, Philosophy, History*, Michael Carrithers,
Steven Collins and Steven Lukes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Śaivism and the Tantric Traditions’ In *The World’s Religions*, S.
Sutherland; L. Houlden; P. Clarke and F. Hardy (eds), London:
Routledge, pp. 660–704.

1992. ‘The Doctrine of the Mālinīvijayottara Tantra’ In Teun Goudriaan
(ed.), *Ritual and Speculation in Early Tantrism: Studies in Honor of
André Padoux*,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281–

312.

1994. ‘Vajrayāna: Origin and Function’ In *Buddhism into the Year 2000: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Bangkok/Los Angeles: Dharmmakaya Foundation, pp. 87–102.
1995. ‘Meaning in Tantric Ritual’ In *Essais sur le Rituel*, A.-M. Blondeau and K. Schipper (eds), Louvain: Peeters.
2001. ‘History through Textual Criticism in the study of Śaivism, the Pañcarātra and the Buddhist Yoginītantras’ In *Les sources et le temps: Sources and Time*, François Grimal (ed.), Publications du département d’indologie 91,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pp. 2–47.
2004. ‘The Śaiva Religion among the Khmers (Part I)’,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os 90–91 (2003–2004), pp. 349–462.
- 2005a. ‘Religion and the State: Śaiva Officials in the Territory of the King’s Brahmanical Chaplain’, *Indo-Iranian Journal*, No. 47 (2005), pp. 229–300.
- 2005b. ‘A Commentary on the Opening Verses of the Tantrasāra of Abhinavagupta’ In *Sadananda Das and Ernst Furlinger* (eds), *Sāmarasya: Studies in Indian Arts, Philosoph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 in Honour of Bettina Bäumer –*, New Delhi: D.K. Printworld, pp. 89–148.
- 2006a. ‘The Lākulas: New Evidence of a System Intermediate between Pāñcārthika Pāśupatism and Āgamic Śaivism’, *Indian Philosophical Annual*, No. 24 (2003–2005), pp. 143–217.
- 2006b. ‘The Date of Sadyojyotis and Bṛhaspati’, *Cracow Indological*

- Studies, No. 8, pp. 39–91.
- 2007a. ‘The Śaiva Exegesis of Kashmir’ In Dominic Goodall and André Padoux (eds), *Mélanges tantriques à la mémoire d’Hélène Brunner / Tantric Studies in Memory of Hélène Brunner*, Collection Indologie 106, Pondicherry: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pp. 231–442 and (bibliography) pp. 551–82.
- 2007b. ‘Swami Lakṣmaṇa Joo and His Place in the Kashmirian Śaiva Tradition’ In *Samvidullāśah*, Bettina Bäumer and Sarla Kumar (eds), New Delhi: D.K. Print- world, pp. 93–126.
2009. ‘The Śaiva Age The Rise and Dominance of Śaivism during the Early Medieval Period –’ In *Genesis and Development of Tantrism*, Shingo Einoo (ed.), Tokyo: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pp. 41–349.
- ŚASTRI, Hara Prasad
- 1905 and 1915. *A Catalogue of Palm-leaf and Selected Paper Mss. Belonging to the Durbar Library, Nepal* (2 Vols), Calcutta: Baptist Mission Press. Schoterman, J. A. (ed. and trans.) (1982), *The Ṣaṣṭā hasrasaṃhitā*: Chapters 1–5, Leiden: Brill.
- SCHOTERMAN, J. A. (ed. and trans.)
1982. *The Ṣaṣṭāhasrasaṃhitā: Chapters 1–5*, Leiden: Brill.
- SCHRADER, Otto
1916. *Introduction to the Pāñcarātra and the Ahirbudhnya Saṃhitā*, Madras: Adyar Library.
- SERBAEVA-SARAOGI, Olga
- 2006*. *Yoginīs in Śaiva Purāṇas and Tantras: Their Role in Transformative*

Experiences in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é de Lausanne.

SFERRA, Francesco

1998. ‘Le fonti scritturali del Pāñcarātra nel Saṃvitprakāśa di Vāmanadatta’,
in *Atti del Settimo Convegno Nazionale di Studi Sanscriti (Palermo 20
–21 maggio 1993)*, Oscar Botto (ed.), Torino: Associazione Italiana di
Studi Sanscriti, pp. 285–99.

2003.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ndu and Buddhist
Tantras’ In *Buddhist Asia 1. Papers from the First Conference of
Buddhist Studies Held in Naples in May 2001*, Giovanni Verardi and
Silvio Vita (eds), Kyoto: Italian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pp. 57–
84.

SHASTRI, Madhusūdan Kaul

1918–1938. *The Tantrāloka of Abhinavagupta: With Commentary by Rājānaka
Jayaratha: Kashmirian Series of Texts and Studies* Nos 23, 28, 29,30,
35, 41, 47, 52, 57, 58 and 59, Bombay and Srinagar.

SILBURN, Lilian and PADOUX, André

1998. *La lumière sur les Tantras, chapitres 1 à 5 du Tantrāloka*, Paris:
Collège de France.

SLOUBER, Michael

2007. ‘The Manuscripts of the Kiryākāloaguṇottara’, *Newsletter of the
Nepal-German Manuscript Cataloguing Project*, Vol. 5, pp. 9–16.

STRICKMANN, Michel

1996. *Mantra et mandarins. Le bouddhisme tantrique en Chine*, Paris:
Gallimard.

Tantrikābhīdhānakośa I

2000. *Tantrikābhīdhānakośa I. Dictionnaire des termes techniques de la littérature hindoue tantrique. A Dictionary of Technical Terms from Hindu Tantric Literature. Wörterbuch zur Terminologie hinduistischer Tantrén, sous la direction de H. Brunner, G. Oberhammer et A. Padoux,*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681. Band,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Vol. 35,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Tantrikābhīdhānakośa II

2004. *Tantrikābhīdhānakośa II. Dictionnaire des termes techniques de la littérature hindoue tantrique. A Dictionary of Technical Terms from Hindu Tantric Literature. Wörterbuch zur Terminologie hinduistischer Tantrén, sous la direction de H. Brunner, G. Oberhammer et A. Padoux,*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714. Band.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Vol. 44,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Tantrikābhīdhānakośa III

2013. *Tantrikābhīdhānakośa III. Dictionnaire des termes techniques de la littérature hindoue tantrique. A Dictionary of Technical Terms from Hindu Tantric Literature. Wörterbuch zur Terminologie hinduistischer Tantrén, sous la direction de H. Brunner, G. Oberhammer et A. Padoux,*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Sitzungsberichte, 839. Band.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

geschichte Asiens Vol. 76,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TOMABECHI, Toru

2007. ‘The Extraction of Mantra (mantroddhāra) in the SarvabuddhasamāyogaTantra’ In *Pramāṇakīrtiḥ. Papers dedicated to Ernst Steinkellner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Part 2, Birgit Kellner, Helmut Krasser, Horst Lasic, Michael Torsten Much and Helmut Tauscher (eds),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Vol. 70, No. 2,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903–23.

2008. ‘Vitapāda, Śākyamitra, and Āryadeva: On a Transitional Stage in the History of Guhyasamāja Exegesis’ In *Esoteric Buddhist Studies: Identity in Divers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soteric Buddhist Studies, Koyasan University, 5 Sept.–8 Sept. 2006*, Editorial Board of the ICEBS (ed.), Koyasan: Koyasan University: 171–77.

2009. *Adhyardhasatikā Prajñāpāramitā: Sanskrit and Tibetan Texts*, Sanskrit Texts from the Tibetan Autonomous Region No. 5, Beijing/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TOMABECHI, Toru and MIMAKI, Katsumi

1995. *Pañcakrama: Sanskrit and Tibetan Texts Critically Edited with Verse Index and Facsimile Edition of the Sanskrit Manuscripts*, Bibliotheca Codicum Asiaticorum Vol. 8, Tokyo: The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TORELLA, Raffaele

2002. *The Īśvarapratyabhijñākārikā of Utpaladeva with the Author's Vṛtti. Critical Edition and Annotated Transla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Revised edition of Serie Orientale Roma LXXI. Rome: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1994.)
2004. 'How is Verbal Signification Possible: Understanding Abhinavagupta's repl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Vol. 32: 173–88.
- 2007a. 'Studies in Utpaladeva's Īśvarapratyabhijñā-vivṛti. Part I. Anupalabdhi and Apoha in a Śaiva Garb' In *Expanding and Merging Horizons. Contributions to South Asian and Cross-Cultural Studies in Commemoration of Wilhelm Halbfass*, K. Preisendanz (ed.),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nkschriften, 351. Band = Beiträge zur Kultur- und Geistesgeschichte Asiens No. 53, 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473–90.
- 2007b. 'Studies in Utpaladeva's Īśvarapratyabhijñā-vivṛti. Part II. What is Memory?' In *Indica et Tibetica. Festschrift für Michael Hahn zum 65. Geburtstag von Freunden und Schülern überreicht*, Konrad Klaus and Jens-Uwe Hartmann (eds),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66,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539–63.
- 2007c. 'Studies in Utpaladeva's Īśvarapratyabhijñā-vivṛti. Part III. Can a cognition become the object of another cognition?' In *Mélanges tantriques à la mémoire d'Hélène Brunner / Tantric Studies in Memory of Hélène Brunner*, Dominic Goodall and André Padoux (eds), Pondicherry: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Collection Indologie 106:475–84 and (bibliography): 551–82.

2007d. ‘Studies in Utpaladeva’s Īśvarapratyabhijñā-vivṛti. Part IV. Light of the subject-light of the object’, in *Pramāṇakīrtiḥ. Papers Dedicated to Ernst Steinkellner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Part 2, Birgit Kellner, Helmut Krasser, Horst Lasic, Michael Torsten Much and Helmut Tauscher (eds), Wiener Studien zur Tibetologie und Buddhismuskunde 70.2,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925–39.

TÖRZSÖK, Judit

1999*. ‘*The Doctrine of Magic Female Spirits*’. *A Critical Edition of Selected Chapters of the Siddhayogeśvarīmata(tantra) with Annotated Translation and Analysis*, Oxford: unpublished doctoral thesis.

2000. ‘Tantric Goddesses and their Supernatural Powers in the Trika of Kashmir (Bhedatraya in the *Siddhayogeśvarīmata*)’, *Rivista degli Studi Orientali* LXXIII (1999):131–47.

2006. ‘Helping the King, Ministers and Businessmen? – Apropos of a Chapter of the *Tantra of Magic Female Spirits (Siddhayogeśvarīmata)*’, *Cracow Indological Studies*, Vol. 8:5–38.

TRIPATHI, Gaya Charan

2004. *Communication with God. The Daily Pūjā Ceremony in the Jagannātha Temple*, Delhi: 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 / Aryan Books International.

VASUDEVA, Somadeva

2004. *The Yoga of the MālinīvijayottaraTantra. Chapters 1–4, 7, 11–17. Critical Edition, Translation & Notes*, Collection Indologie Vol. 97, Pondicherry: Institut Français de Pondichéry / École française d’Extrême-

Orient.

WATSON, Alex

2006. *The Self's Awareness of Itself: Bhaṭṭa Rāmakaṇṭha's Arguments Against the Buddhist Doctrine of No-self*, Publications of the De Nobili Research Library, No. 32, Vienna: de Nobili Institut für Südasiens-, Tibet-, und Buddhismuskunde der Universität Wien.

WHITE, David Gordon

2000. *Tantra in Practi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Kiss of the Yogini: 'Tantric Sex' in its South Asian Context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Sinister Yogi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lden, E. (2000), *Der Kreislauf der Opfertgaben im Veda*,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